

저자 (Authors)	유명종
출처 (Source)	<a href="#">철학연구 13</a> , 1971.10, 49-60(12 pages) <a href="#">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13</a> , 1971.10, 49-60(12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대한철학회</a>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64067">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64067</a>
APA Style	유명종 (1971). 단군신화. 철학연구, 13, 49-6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05 16:11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壇 君 神 話

劉 明 鐘\*

目 次	
1. 民族의 黎明	4. 곰(熊) 토오래미즘
2. 濊貊의 支石臺社會	5. 石器時代의 熊祭
3. 天帝子의 下降	6. 샤아먼 熊女

## I. 民族의 黎明

殷族을 古代中國의 東方民族이라 하고, 혹은 舜도 東夷라 한다. 東夷란 東方民族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또 殷族도 東夷라 하였다. 그리하여 中國의 古代 先住民은 다름아닌 東夷라 하게 된다.

先秦時代 中國의 山東·江蘇·安徽등, 淮水以北 沿海에 거주하던 九夷가 대표적인 上古의 東夷이며, 陽夷·萊夷·淮夷·徐夷·島夷(鳥夷)·介夷·根牟夷등이 九夷인데 根牟夷는 후에 魯에게 멸망되고 만다.

옛날 堯는 羲仲을 嵎夷陽谷에 있도록 하였으니, 陽谷이란 곧 陽谷으로 「양달」 혹은 「양지쪽」이다. 壇君의 阿斯達 또는 朝鮮, 혹은 日本의 日向등을 모두 「아침해 솟는곳」(東表日出處)의 뜻이라 하며, 陽谷과 함께 「양달」 「양지쪽」이라 한다.

원래 靑州에 있던 嵎夷는 다시 登州로 옮겨 山東省에 퍼져 살았다고 하며, 新羅統一時에 唐이 金春秋를 「嵎夷道行軍總管」이라 한 것은 嵎夷와 韓族의 관계를 암시한다.

「後漢書, 東夷傳」에 夏后氏太康 즉 禹王의 孫이 失德하였으므로 비로소 夷人이 반란을 일으켰다. 少康이후는 賓客으로 평온하였으나, 桀王에 이르러 諸夷가 침노하여, 殷湯王의 革命에 이르러 평정되었으므로 약 四百年간은 諸夷가 강성한 시기였고, 다시 三百年후 殷의 仲丁때 藍夷가 노략질 하였으며, 三百年간은 혹 북중하기도 하고, 혹은 반란도 일으켰으나 武乙때 더욱 東夷가 강성하여 淮와 岱로 분거하였다.<sup>(1)</sup>

「左傳」昭公 11년에 「紂克東夷, 而殞其身」이라 하였으니, 紂王의 멸망은 東夷때문이며, 그들을 단 西方民族인 周武王의 침략에 의하여 殷은 멸망하였다.

周는 建國후에 山東의 萊夷와 淮水, 泗水의 淮夷, 徐夷에 대하여 懷柔策으로 나아갔으나 管蔡의 叛亂에 淮夷가 가담하였으므로 周公이 평정하였다. 周成王은 淮夷와 奄國

\* 前 慶北大學校 文理大 敎授

(1) 晉堯命羲仲宅嵎夷曰陽谷, 蓋日之所出也, 夏后氏太康失德, 夷人始畔. 自少康已後世服王化, 遂賓於王門, 獻其樂舞, 桀爲暴虐, 諸夷內侵. 殷湯革命, 伐而定之. 至于仲丁, 藍夷作寇. 自是或服或畔, 三百餘年. 武乙衰敝, 東夷寔盛, 遂分遷淮岱, 漸居中土. (後漢書, 卷115)

(2) 漢孔氏曰徐戎, 淮夷並起寇魯. (書傳, 蔡註)

의 반란을 親征하였으나, 徐夷, 淮夷가 일어났으며, 徐夷는 다시 罔를 침노하였다.<sup>(3)</sup> 그리하여 徐夷(徐戎)는 王國으로 독립하고 周에 복속치 아니 하였다.

「後漢書」에 張華의 博物志를 인용하여

「徐君의 宮人이 알을 낳았으므로 不祥타 하고 물가에 버렸다. 홀어머니가 키운 鵠倉이라는 개가 물고 왔으므로 따뜻하게 덮어 두었더니, 드디어 아이가 나왔다.」<sup>(4)</sup>

고 한 卵生兒 徐偃王의 傳説은 朱蒙, 赫居世干, 首露王의 卵生説과 비슷하다. 偃王은 「陳蔡사이의 개천을 뚫다가 朱弓과 朱矢를 얻었으므로 天瑞라 믿고, 이름을 擘(弓)이라 하고, 偃王이라 하였다.」<sup>(4)</sup>한다. 이 朱弓, 朱矢의 「朱」와 首露王탄생서의 「紫繩」 「紅纒」 및 赫居世干 탄생설화의 紫卵과 大伽耶王 內珍朱智등의 「紫·紅·朱」는 동일하게 日神崇拜와 관계가 있으며, 弓矢는 夷字가 그대로 大弓인점과 朱蒙의 善射와 동일한 思想이라 생각되며, 南方諸族이 太陽神의 神體로 화살(矢)을 사용한 일이 있으므로 이것은 혹시 太平洋沿岸의 南方族의 北上에 영향된 사상들이 아닐까 생각된다.

江淮諸侯등 36國을 복속케 한 偃王의 활동에 놀란 周王은 楚로하여금 정벌케 하였다. 전쟁의 비침함을 참지 못한 徐偃王은 彭城 武原縣 東山 밑으로 부족을 이끌고 피하였으므로 그山을 徐山이라<sup>(5)</sup>하게 되었으며, 山의 石室은 지금도 土民들이 神靈하다고 믿었다 한다. 이 石室은 中國人이 支石墓(Dolman)를 두고 말한 것이며, 이러한 支石墓는 中國의 河北, 山東, 遼東과 韓半島 및 北九州의 일부에 분포하고 있는 巨石文化의 遺蹟이다. 이 巨石文化를 돌(大石)에미너즘에서 출발했다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秦漢統一後 諸夷의 일부는 동화하고, 나머지는 北上하거나, 廟島列島를 거쳐 韓半島로 들어 왔다 한다.

다시 中國의 山東과 江淮의 各地方에는 稷偃·穢人·良夷·發人·俞人·白民등이 있었고, 河北과 山西의 北에는 高夷와 孤竹이 있었다 한다. 稷偃은 말할것도 없이 肅偃으로 당시만해도 瑯琊와 齊사이에 있어 肅·視·鐘吾·弱과音が 통하므로 같은 種族으로 中國의 先住民이라 한다. 穢人은 徐夷이며, 「契丹古傳」에 宛의 徐가 滿洲로 옮겨 徐珂殷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滿洲의 徐珂殷은 徐夷가 이곳으로 옮겨 세운 나라로 宛灘에 있었다 한다.<sup>(6)</sup> 「漢書地理志」에 玄菟郡 西蓋馬縣을 宛灘이라 하였는데 그 註에 「馬營川西北入鹽難水」라 한 鹽難水가 그곳이라 한다. 馬營川은 渾江이요, 鹽難水는 鴨綠江이므로 徐珂殷의 宛灘은 渾江에 있었다고 생각되며, 渾江은 또 沸流水이므로 후에 朱蒙의 高句麗가 일어난 곳이다. 이러한 渾江溪谷은 鐵의 生産地로서 桓仁(懷仁)이 그 중심지이다. 이 江의 古名을 또 修佳江이라기도 하며 鐵器時代에 들어서

(3) 博物之曰 徐君宮人 媿而生卵 以爲不祥, 棄於水濱, 孤獨母有犬 名鵠倉, 持所棄卵御以歸母, 母覆媿之, 遂成小兒 生而偃稱故以爲名, 宮人聞之 乃更錄取, 長養爲徐君尸子 曰偃王, 有筋而無骨故曰偃也. (同上)

(4) 武原縣故城 在今泗州下邳, 縣北徐山, 在其東 博物志曰 徐王妖冥不常, 武原縣東十里 見有徐山石室祠處, 偃王溝通陳蔡之間, 得朱弓朱矢 以己得天瑞, 自稱偃王. (同上)

(5) 康王之時, 肅偃復至, 後徐夷偃號乃率九夷以伐宗周, 西至河上, 穆王畏其方熾, 乃分東方諸侯命徐偃王主之, 偃王處潢池東 地方五百里, 行仁義 陸地而朝者, 三十有六國, 穆王後得虜豨之, 衆乃使潘父緡 以告楚令伐徐, 一日而至, 於是楚文王 大舉兵而滅之, 穆王仁而無備, 不忍鬪其人故致於敗 乃北走彭城武原縣東山下, 百姓隨之者以萬數, 因名其山爲徐山. (後漢書, 東夷)

(6) 先是宛之徐, 濟海船繇, 倚殷, 居於宛灘, 開地數百里, 築弦牟塗, 稱昆夷城, 國號徐珂殷 (契丹古傳)

면서 韓馬民族 육성지로 알맞은 곳이라 하겠다.

良夷란 河口에 있던 萊夷로 古代 青州에서 萊州로 이동한 牧畜民이며, 高夷 역시 海邊에 있었다. 周武王에게 정벌된 萊夷의 나라를 「干國」이라 하고, 또 「干萊」라 하여, 淮南子 道應訓註에 「干國在今臨淄, 出寶劍」이라 하였으며, 名劍의 생산지인 干國이 青州의 臨淄에 있었다 하고, 發干의 「干」이라는 縣名이 東昌·青州·沂州등 山東一帶에 걸쳐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發干」은 貂族을 말하며 河北沿海의 萊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發人과 發干은 같은 貂族으로 「竹書紀年」에서의 方夷요, 俞人과 白民, 역시 동족이라 하므로 白·發·方·貂이 모두 音이 같은 동족이다. 또 遼西郡의 不令支는 孤竹城이 있었으므로 伯夷, 叔齊와 관계가 있어, 不令支의 「不」역시 「干」이다. 「干·方·白·發·不·韓·貂」이 「밝한」이며 穢人과도 같은 종족으로 穢貂族의 異名이라 생각된다.

이와같이 東夷와 穢貂族의 관계는 명백하지는 못하지만 穢貂은 廣義의 東夷라 할 것이며, 史記에 「燕北迫蠻貉」이라 하고, 詩傳에도 「至于海邦, 淮夷蠻貉」이라 하여 貉族의 이름이 나타난다. 燕의 北方, 海岸地方에 있던 貉族은 다시 이동하여 夫餘, 혹은 韓半島의 高句麗, 東穢, 沃沮, 百濟등이 되었고, 이들은 모두 穢貂族이라 생각된다.<sup>(7)</sup>

白民, 發干등은 바로 「밝한」이요, 貉, 貂으로 借字되어 불리었으며, 本據地는 松花江과 遼河의 平野로서 北中國과 渤海沿岸 또는 江淮地方까지 분포하여 우리 民族의 黎明期를 맞이한 것 같다.

## II. 濊貂의 支石墓社會

中國文獻에 濊貂을 濊 또는 貂으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貂과 濊는 다른 民族으로 생각하여 濊는 漁撈와 狩獵을 생활수단으로 하는 櫛文土器人이며, 貂은 平地와 丘陵에 살며 저급한 농경 및 牧畜, 그리고 狩獵을 병행하는 無文土器人이라 추정하고 貂人이 점차로 濊人의 세계로 진출하여 이것을 압박하고, 서기 2~3세기에는 이 방면의 지배 세력으로 되었으며 支石墓社會도 貂人의 그것이라고 三上次男教授는 論하였다.

그러나 濊貂은 별개민족이 아니라 略稱으로 濊 혹은 貂이라 한 것으로 생각된다. 濊貂의 中國古音이 Kuaimo이며, 日本書記에서는 貂(Koma)라 하였고, 高句麗도 Koma라 하였다. 王儉城의 儉과 蓋馬는 「곰」과 관련되며, 따라서 檀君神話族이라 할까, 檀君神話を 신봉하는 민족의 총칭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金元龍, 教授 三國時代의 開始에 關한 一考察)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古代에 中國北部에서 환동하던 濊貂은 다시 遼西, 遼東을 거쳐 半島로 南下하여 鳴綠江, 漢江등 北韓全域에 걸쳐 北方式支石墓社會를 건설하였다. 또 일부는 西海岸平野에서 江水를 따라 山地로 퍼져들어간 것이다.

(7) 貉族所居久地, 史記言「燕北迫蠻貉」, 蓋在燕之北, 復由詩言「至于海邦, 淮夷蠻貉」, 推之, 必在東方濱海之地, 淮夷, 徐夷之北, 淮夷, 徐夷以及他夷所在之地, 多在今山東, 沂蘇, 其北即今河北沿海, 蓋即燕之東北, 古代貉族或有住於此者, 後以華夏系之開拓, 乃被而退却或同化. 貉非小族, 其後在南滿者有夫餘, 在朝鮮者有東濊, 沃沮, 句麗, 百濟等國. 可見其初時散布必甚廣, 西至中國東北海濱, 後乃退而卻祇居於朝鮮半島, (中國民族史, 林惠祥著, 第四章 東夷系, 附貉)

그리고 支石墓가 咸鏡道와 平安道에 보이지 않는것은 그 지역이 高句麗의 땅이기 때문에 支石墓 대신 積石塚을 墓制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漢四郡 以前의 支石墓人으로서 青銅短劍, 青銅斧 또는 鐵武器 鐵農具를 쓰면서도 石器를 사용하였다. 黃海道 鳳山郡 智塔里의 櫛文土器는 新石器時代의 農耕을 입증한다. 또 魏志韓傳의 廉斯籛 기록에 「見田中驅雀男子」라 하여 韓族의 北地인 樂浪의 中國人이 農奴로 있었음을 볼 때 稻作의 南播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西紀前後에 이미 벼 농사가 濊貊人과 더욱 남쪽에 있던 韓族에 전달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濊貊의 南下로 百濟의 건국 또한 가능하게 하였으며, 북에 남은 穽貊人들은 高句麗와 연합하여 漢의 郡縣을 공격하고, 혹은 樂浪, 帶方의 中國軍과 합류하여 百濟를 치기도 하였다. 이들 平安南道와 黃海道에 있는 濊貊은 自由民으로서 그 전투력은 高句麗, 百濟, 樂浪, 帶方에게 위협이 되었다. 「三國史記」의 蘇轍은 다름아닌 濊貊으로 西紀前 16, 11; 1, 西紀 22, 30, 31, 34, 55, 216, 229 年에 百濟를 침공하고, 西紀 125, 137, 139 年에 新羅에 침입하였다. 이러한 침공은 高句麗가 平壤地方으로 들어오기 까지요, 그후는 高句麗와 동화 되었기 때문에 298 年의 百濟침입이 마지막이 되었다. 이와같이 北韓全域의 濊貊은 高句麗 건국과 더불어 동화되어 버렸던 것 같다. 그런데 魏志 濊貊에 그들은 十月에 天神을 제사하여 晝夜로 飲酒하고 歌舞하여 그것을 舞天이라 하였다. 또 虎祭가 있어 虎神을 섬겼다 하였으므로 天神信仰과 虎토포템 族임을 알수 있어 虎토포템으로 보아 순수한 수렵민족이 그들의 본색일 것이다.

그러므로 虎토포템은 壇君神話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壇君神話의 一熊一虎의 同居가 바로 이것이다.

### Ⅲ. 天帝子の 下降

天帝의 아들 桓雄은 太伯山 神壇樹下에 降下하여 인간사회를 다스리고 國神族인 熊女와 결혼하여 檀君을 낳는다.

「옛날 桓因에게 庶子인 桓雄이 있었다. 天下일을 거듭생각하여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아버지인 桓因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의 三危太伯을 내려다 보고서 弘益人間할만 하다 하고 天符印 세 개를 주어 인간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三千의 권속을 거느리고 太伯山神, 壇樹下에 降下하여 이곳을 神市라 하였으니, 그를 桓雄天王이라 하였다.」(三國遺事)

桓雄天王이 太伯山 神壇樹下에 降下한 사실은 夫餘 解慕漱의 降下와 新羅 赫居世千의 楊山羅井林의 降下 및 金首露의 總旨降의 降下, 金閔智의 始林降下 등과 같이 하늘에서 수직으로 降下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天帝의 아들이 降下하는 형식은 바로 遊牧民族國家의 始祖설화와 일치하는 것이다. 유우러시아內陸의 遊牧民가운데 西方의 스키타이, 東方의 匈奴, 鮮卑, 柔然, 突厥, 契丹, 蒙古 등과 北의 丁零, 高車 등은 특히 유력한 민족이 있다.

『스키타이』의 民族的發祥과 國家起源에 대하여 荒漠한 스키타아 땅에 「달키다오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의 부모는 天의 最高神인 「파파이오스」와 「도니에플」河의 河神의 딸이 었다 하였고, 「터키」民族인 突厥遊牧帝國을 지배한 阿史那氏族의 始祖傳說에

『그의 조상은 西海가에 살았으나, 이웃 나라에게 멸망되어 열살되는 小兒만 남았다. 이 아이는 팔, 다리를 절단한채로 풀숲에 버려졌다. 이때 암이리(牝狼)가 그를 키웠는데 이웃 왕이 그 아이를 죽였다. 그때 이미 임신한 암이리(狼)는 神靈처럼 海東으로 날아 山上에 降下하였다.

그 산은 東「터키스탄」의 「도울환」盆地에 있는 高昌의 西北에 있고, 그 아래에 큰 동굴이 있었다. 암이리(狼)는 이 동굴에서 十人의 아들을 낳아, 그 중 한 아들이 阿史那氏族의 조상이 되었다. 그 자손들은 몽고지방을 지배하면 柔然에 복속하여 알타이(金山)산 남쪽에서 대장장이로 지냈다. 알타이산의 모습이 투구와 같아 突厥이라 하였다. 그들은 투구를 突厥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君主의 營舍門前에 이리머리를 그린 깃발을 세워 그들의 근본을 되새겼다.』

「阿史那」를 고대 「터키, 몽고어」의 「지노」 혹은 「지노아」라 하였는데, 그 뜻은 이리(狼)이므로 따라서 그것을 漢字化한것이 阿史那이다.

高車라는 遊牧民族인 「터키」族(五·六世紀)의 始祖傳說에 匈奴單于는 두말을 하늘로 시점보내려 하였다. 나뉠 북에 高臺를 짓고 딸들을 두되 「하늘이여, 降臨하사, 이 딸들을 맞이하소서」하고 빌었다.

이에 天이 이리(老狼)의 모습으로 내려와 끝말과 혼인하여, 한 나라를 이루니, 그것이 高車요, 高車國사람들은 소리를 길게 끌어 노래하며, 이리가 짓는 소리를 흉내 내었다.

「蒙古民族」의 기원에 관하여 「元朝秘史」 첫머리에 『上天의 명을 받아 생한 “블대, 지노”(灰色의 狼)가 있었다. 그의 처를 “교아이, 마라루”(美鹿)라 하였다. 河海를 넘어 왔다. 오논河의 원천에 있는 「풀한」山 牧場에서 살다가 「파다지칸」을 낳았다.』하고 「파다지칸」으로 부터 十代째에 “도문벨켄”이 있어 그 妻를 “아란, 교아”라 하였다. 이미 두 아들을 두었으나, 남편이 죽은후에 또 세 아들을 낳았다. 그 이유를 전 남편 아들에게 설명하면서

「밤마다 빛나는 黃色사람이 天窓구멍으로 빛을 타고 내려와 내 배를 어루만지며, 그 빛은 배를 퍼뚫었다. 그사람이 나갈때 달빛, 햇빛으로 보면 黃色의 개(犬)와 같았다. 이아들들은 하늘의 아들이다.」 한것으로 보아 빛(光)에 感胎하였는데, 天은 黃色人으로 天窓口로부터 수직으로 내려온 것이라 생각된다. 몽고민족의 조상은 天에서 降下한 「黃色人」 또는 「天으로 부터 내리는 빛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라 한것이다. 夫餘의 柳花의 경우와 일치하고 있다.

이상과같이 天帝子의 降下는 遊牧民族 始祖傳說의 공통성이라 하겠으나, 단군, 해모수, 혁거세간, 수로왕, 김알지등의 탄생 설화로 보아 遊牧民들과 별리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檀君神話에서 桓雄天王이 降下한 곳은 太伯山頂의 神檀樹下이다. 그곳은 단군족의 聖地요, 聖林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聖地인 山頂과 聖林인 檀樹林이 우리 고대사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天帝子가 下降하는 곳은 聖山이요, 聖林이 있다. 檀君의 太伯山頂에 이어, 新羅六部の 시조가 각각 山마루에 下降하고 있다. 李氏는 瓢巖峰, 鄭氏는 冠山이요, 孫氏는 伊山이며, 崔氏는 花山, 襄氏祖는 明活山, 薛氏는 金剛山이다. 赫居世는 楊山마루의 羅井林에 駕洛國의 시조 首露王은 龜旨峰으로 下降하였으나, 解慕漱는 熊神山에 하강하고, 다만, 金閔智는 始林에 하강하였다.

그러므로 山頂일 경우와 聖林일 경우의 두 형태가 있는 것이다.

山頂일 경우는 山嶽崇拜로 인한 聖山으로서 太伯山, 白山, 즉 「삼피」승배사상이 깃들여 있고, 聖林일 경우는 樹木崇拜로 聖樹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桓雄天王的 神市는 天孫族의 聖地였다.

고대사람들은 前進基地로서 展望이 되는 丘陵, 혹은 山岳을 좋아 하였으며,<sup>(8)</sup> 天神이 樹枝에 下降한다고 믿는 북방 샤아머니즘에 의하여 聖樹, 神木, 神竿등을 신앙하였다. 단군족과 이웃한 만주의 말갈족에 관한 「隋書」列傳기록에 「徒太山이 있는데 그들의 풍속으로 그산을 敬畏하였다」하여, 山嶽崇拜사상을 엿 보게 한다.

山嶽, 樹木, 岩石崇拜는, 그것을 精靈視하는 Animism 와 Shamanism 으로서 퉁구스族, 蒙古族, 貊-키族등에도 이와 같은 사상을 볼 수 있으며, 이들 알타이族외의 古亞細亞族사이에도 널리 분포되어 있어 한국의 원시사상도 北方文化圈에 속함을 증명한다.

#### IV. 곰(熊)토테미즘

『이때 곰(熊)과 범(虎)이 한 굴에서 함께 지냈다. 그들은 일간이 퇴고적 한 나머지 늘 神雄에게 기도하였다. 이때 神은 신령스러운 艾(艾)과 마늘 수무알을 주어 “너의들이 이것을 먹되, 햇빛을 백일동안 보지 아니한다면 사람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하였다.

곰과 범은 이것을 먹고, 三七日을 금기하여 곰은 여자가 되었으나, 범은 금기 하지 못한 결과 사람으로 화하지 못하였다. 곰여는 사람은 되었지만 짝이 없어 檀樹 밑에서 늘 짝을 얻어 아이 낳기를 祝願하였다.

이에 神雄이 임시 편법으로 사람으로 화하고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를 檀君王 儉이라 한다.』

곰 토테미즘(Bear Totemism)은 북방 민족에 널리 있는 현상으로, 그들은 곰 외에 이리, 범, 독수리, 까마귀, 백말들을 토테미즘으로 하였으나, 그 가운데서 곰의 숭배가 별

(8) 熊族祖神의 山上降下를 모티브로 한 神話는 古朝鮮의 檀君神話와 六伽耶國의 祖가 龜旨峰에 下降한 開國神話, 기타에 보인다. 檀君神話에서는 天神의 子는 三種의 寶器와 風師, 雨師, 雲師 등 三職能神을 다루고 山上檀木가에 降下 하였다. (日本民族의 起源, 神話)

리 행하여 졌다. 곰숭배의 분포를 보면, 동북시베리아의 에스카모족, 추치족(Chukchi) 코리약족(Koryak), 캄차달족(Kamchadal), 유카기르족(Yukaghir), 라무트족(Lanut) 등이며, 중앙 시베리아지방에서는 통구스족, 야크트족등이요, 서부 시베리아에서는 오스티야크족(Ostyak), 보글족(Vogul), 등의 핀족(Finns)과 래프족(Lapps)등이다 그리고 黑龍江流域에 있는 기리야크족(Gilyak), 오로치족(Orochi)과 골디족(Goldi)등과 특히 아이누족은 지금까지도 熊祭가 성대하여 곰숭배의 뚜렷한 민족이며, 그들의 始祖는 곰이라 믿는다. 아케리카 인디안의 여러부족들도 곰 토오템이 전승되어 숭배의 대상이되고 있는데, 그들은 원래 원주지가 시베리아였기 때문이다.

핀족중에 우구리아족인 오스티야크족은 오부장 오른편에 살면서 곰을 숭배하며 熊祭를 지낸다. 같은 보글족도 북우랄산맥 동쪽에 있으면서 곰숭배, 熊祭가 행하여지고 있다.

특히 우리 단군족과 가까운 간주의 고대민족인 말갈족도 곰토오템과 함께 山嶽崇拜를 행하였다. 勿吉, 말갈이 다 같은 동일계의 민족인데 단군신화의 곰 토오템 및 山嶽崇拜와 일치하고 있다.

이들은 中國의 南北朝時에 勿吉 혹은 靺鞨이란 種族으로 上古로 부터 肅慎, 息慎 혹은 稷慎이라 하였던 黑龍江과 松花江 流域의 수렵민이 었다. 이들을 다시 挹婁, 勿吉, 靺鞨이라 하였고, 또 女眞, 女直이라 한 滿洲族이라, 三國魏代까지도 石器를 사용한것 같으나, 海上活動에 능하여 沃沮族으로 하여금 春夏節에는 山谷에 집거케 하여 바다가 얼어 붙은 겨울에야야 平地에 나오게 할 것으로, 이들의 유적은 멀리 北海道의 小樽의 手宮과 余市동 洞窟에 記號같은 그림을 남겨, 「샤아머니즘」과 관련된것 같으며, 利尻, 禮文으로부터 網走, 根室, 釧路에 이르르고, 오토스크海岸이 가까운 호른마일에서 발견된 土器에 貼附文이 있었다. 網走의 窟葬에서는 人骨 두개가 土器로 덮여 있고, 그 人骨은 日本人도 아이누人也 아닌 北方系人種이 었다. 특히 「모오로」貝塚에서 石器와 鐵器가 함께 발견되어 金石器文化人임을 드러 내었으며, 곰(熊)숭배의 흔적과 骨器인 술가락자루머리에 물개의 머리조각이 있고, 스키타이式 靑銅刀로 토아도 肅慎系였을 것이라 생각되고 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간 肅慎系는 한때 北海道까지 침입한 것이다. 「魏書」勿吉國과 「隋書」에 「國南에 徒太山이 있다. 魏語로 太白이다. 그산에 虎豹, 熊狼이 있되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아니 하며, 또 사람들은 산위를 돌아 다니지 아니 한다. 혹시 그산을 지나치는 사람은 모두 物을 많이 바친다.」하였고 「北史」에서 그들 슬속으로 徒太山(太白山)을 대단히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산위에 오르지 아니하며, 산위에는 熊熊, 豹狼이 있되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으며, 사람도 또한 죽이지 않는다」 하였으므로 곰(熊熊)범과 이리를 토오템으로 한 種族이라 생각된다.

특히 토오템社會에서는 집단 토오템의 표시로서 徽章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이들 勿吉國에서는 「頭插虎豹尾」라 하였으므로 虎豹尾를 머리에 꽂아서 虎豹토오템집단임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이로서 勿吉族은 곰(熊熊)뿐 아니라 범(虎豹)도 토오템으로 한 氏族이며, 東嶽도 虎神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범토오템族이요, 또 壇君神話의 熊虎가 다 같이 토오템(獸)임과 부합하는 것이다. 아니 누은 熊神을 가무이(Kamui)라 하고 터키어에서는 Kam, 일본어는 Kami, 한국에서는 神, 酋長을 겸(Kam), 금(Keum)이라 하였

으며, '알타이祖繼'로는 Kami이므로 그것에 기원을 두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토오템적인 自然觀은 狩獵生活에서 오는 특이한 世界觀이다. 動植物을 포함하는 자연환경과 밀착한 생활로서 그들에게는 人間과 世界와 自然은 全體속의 하나이며, 서로 依存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조화있는 秩序속에서 父祖傳來의 慣習에 의한 狩獵生活에 삶의 보람을 느낀다.

그리하여 고달픈 經濟生活에 직면하면서도 그들 특유의 寓話的으로 엮어진 神話와 生의 표현으로 된 儀禮와 융합한 神話, 儀禮的世界에 安住하여 倦怠하지 않는 生의 즐거움을 느낀다.

토데미즘은 動植物등 自然種 혹은 自然現象을 人間の 社會的秩序속에 가져와 人間の 氏族·部族일부의 멤버로 생각하며, 部族의 內的 連帶意識을 강화하며, 생활에 의미를 부여한다. 토오템의 집단은 일반적으로 父居요, 外婚的인 집단이라, 妻는 他집단에 속하면서 남편의 시골에 살며, 아들 딸들은 父系集團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燧君神話의 一虎一熊의 同居가 곧 토데미즘의 外婚制度를 내포하고 있어, 곰토템과 범토템의 부부생활을 뜻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곰토템부족들의 熊祭는 增殖儀禮이다. 增殖儀禮는 토오템센터라고 할 특정장소에서 행하여 진다. 이러한 센터는 動植物의 특정한 種子와 관련이 있는 장소로 文化·英雄과 결합하며 그 文化·英雄이 그 장소 '명숙'으로 들어 갔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岩石 樹木, 혹은 水穴이 있는 센터는 토오템種의 生命·精靈 혹은 生命·力을 내포하여 그 토오템센터에서 연출되는 儀禮는 種子의 生命과 精靈의 活力을 更新한다고 믿는다.

增殖儀禮인 熊祭와 함께 주목할것은 成年式의 행사이다.

靑少年을 成人社會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하기 위하여 행하는 祭式이다. 지상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전개되지만 割禮·文身·拔齒牙, 傷痕등 일종의 자기절단이 그 준비작업으로 강요된다.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는 인간은 祖會 一員으로 생각지 않는다. 이러한 加工과 施術은 집단의 極印이며, 이 심볼없이 그들의 멤버가 될 수 없으며, 그를 후보자는 음식상의 타부와 침묵, 고독을 명령받는다. 이러한 공포를 이겨냄으로써 고난을 극복하여 험난한 장래의 고난에 대한 시련준비를 한다.

또 成年式은 그 사회집단이 온존해 온 극비의 전통적인 신성한 神話와 儀禮를 전하는 전달식이기도 하였다.

燧君神話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을지 모르되 『魏志東夷傳』의 三韓 靑少年들이 동가죽을 밧줄로 꿰어 나무를 쫓아 배고 하루종일 노동하였다는 기이한 습속을 기록하였는데, 三韓의 이러한 습속은 成年式을 기록한 것이라 생각된다. 『後漢書東夷傳』에서도 역시 築室행사에 그렇게 하였다 하였으니, 그 築室은 獵舍건축이며, 靑少年의 入信苦行이라 볼 것이다.

## V. 舊石器時代의 熊祭

五萬年이상이라 추정되는 舊石器時代의 狩獵民族의 곰(熊) 숭배를 스위스의 뢰에디스(Vattis)에 있는 드라곤洞窟(Drachenloch)에서 발견하였다. Emil Bachler는 「스위스에 있어서의 알프스舊石器時代」라는 論文에서 주목할 사실을 발표하였다.

「드라곤洞窟에서 첫째굴로부터 둘째굴로 발굴이 진행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狀況에 부딪혔다. …… 발굴자를 놀라게 한것은 왼쪽 즉 남쪽 동굴의 벽을 따라 55M 길이에 벽에서 40cm로부터 60cm 거리를 가지면서 40cm 길이의 불안정한 石灰石벽돌을 水平으로 쌓은 높이 80cm의 石壁이 었다. 동굴인들의 짓이라 생각되었으며 天井의 落下같은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그 돌벽과 바위벽 사이에는 동굴에 사는 곰의 骨片이 원형대로 훌륭한 手足骨이 쌓여 있어 더욱 놀라게 하였다. …… 긴 뼈가 선택된것으로 보아 특정한 정리가 되어 있고…… 手足骨은 그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쌓은 버려져 있었다」

이러한 둘째굴 앞면에는 화로(爐)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셋째굴의 안쪽으로 통하는 좁은 통로의 2M안으로 平石을 둘러 싸고 위에 一枚의 平石으로 덮은 슬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石箱形이기 때문에 「保管된 화로」라 불리었다.

그 곁의 조금 떨어진 오른쪽으로 두번째 石灰石벽돌로 된 箱子가 있었다. 그것은 95cm~90cm의 幅과 높이 1m요, 12cm부피의 平石으로 덮여 있었다. 18개 정도의 벽돌로 된 箱子앞면을 헐었더니 빈 사이가 있고, 무거운 덮개 돌 밑에는 차례로 일곱개의 잘 보존된 동굴곰의 頭蓋骨이 코와 입부분은 입구를 향하고 있었다. …… 곰곰(Ursus Spelaeus)의 뼈가운데서 훌륭한하고 좋은것을 埋葬한 棺이었다」

셋째굴의 상태는 더욱 놀라게 하였다. 岩壁의 꼭 파인 곳에는 곰곰의 頭蓋骨이 몇개나 각각 埋葬되어 있고, 그가운데는 手足骨도 함께있었다. 「頭蓋骨을 완전하게 보호할 洞窟人의 목적이 더욱 뚜렷하였다. 그것은 한장의 돌위에 두었으며 사방은 작은 石灰石의 破片으로 쌓았으며, 거의 원전하게 한장의 돌판으로 덮여 밀폐되어 있었다. 어느것을 보아도 귀중한 물건으로 생각된것이며, 파괴가 빠르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생각이 었다.」

발굴자들은 이것이 「埋葬儀式」의 증거임을 알았고, 동굴인들로 가장 훌륭한 것으로 이 儀式을 행하였던 것이라 研信케하였다.

이와같이 드라곤洞窟은 3개의 공간으로 되었으며 첫째굴은 居住가 목적이며, 셋째굴의 안쪽굴은 世俗的인 不淨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配慮된 것이다 생각되며, 둘째굴, 셋째굴의 벽보존으로 보면 그들 狩獵人들의 住居의는 구별된 聖所라 생각된다. 原始人은 가장 가치있는 것을 神에게 犧牲하는 祭禮를 가졌으며, 이 드라곤洞窟의 발견으로 古代祭禮場이 研認되었으며, 그들의 內的生活도 알게 하였다. 이로서 最古의 宗教祭禮에 관한 遺蹟을 발견한 셈이 었다.

불란서의 페타洞窟 스로바니아의 모르노바 동굴(Mornovahohle), 또 스위스의 쉬스렌

동굴(Schnurenloch), 오스트리아의 자르조헨동굴(Salzofenhöhle) 南佛의 동굴인 도로아 프래루(Trois Frères) 등등의 여러 洞窟에서도 곰뼈가 埋葬되어 있었으며, 가장 안쪽의 굴이 犧牲바치는 祭禮聖所로 되어 있었다.

頭蓋骨 혹은 긴 뼈를 犧牲으로 하는 原始的犧牲은 食物을 주신 最高存在인 모든것의 支配者에 感謝와 계속 주실것을 祈願하여 그들의 生命의 糧食이 될 동물 혹은 식물을 바친 것이다. 곰의 뼈를 사용한 그들에게 熊祭가 가장 안쪽인 동굴에서 실시되었고, 동시에 화로의 보관으로 보면, 이미 火의 보호와 신앙이 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熊祭는 북아시아, 북동아시아 혹은 북아메리카등지에서 행하여 졌으나, K. J. Narr은 「熊祭의 깊은 의미는 동물의 再生과 狩獵人과의 和解에 목적이 있었으며 狩獵人들은 곰(熊)에게 용서를 빌며 野獸와 森林의 主, 最高存在에게 몸을 돌려주는 신비적 방법으로 시행되었다」고 하였다.

西歐와 中部유유럽의 舊石器時代에 속하는 곰의 그림 즉 Toris Frères 洞窟에서 발견된 곰그림은 熊祭의 증거라 지적된다. 그 두개의 그림의 하나에는 입과 코로부터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들과 화살도 먼지고 있었다. 또 다른 하나의 그림에는 곰주위를 춤추는 사람들이 있고, 곰머리를 덮어 쓴 사람과 곰과 인간을 혼합한 모습이 보이므로 그것이 熊祭의 장면임을 알 수 있었다. 北樺太의 키리야크인의 熊祭에 대하여 『키리야크인은 구루(Kur)라는 最高神을 신앙한다. 이 신앙에는 絶望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고 一切는 단순명쾌한 祝文이며 단지 「오, 신이여, 제발!」이라 한다. 키리야크인의 信仰에 最高神의 森林 支配者가 맺어 있으나 그들은 最高神의 分身이다. 곰은 다른 세계에서 온 것이며 熊祭는 山의 支配者와 같이 곰에게 죽었거나 溺死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개회되었던 것이다』고 Georg Siegmund은 「原始人の 信仰」에서 설명하였다. 熊崇拜와 熊祭는 狩獵人으로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Ⅶ. 샤아먼 熊女

「신령스러운 쭉(艾)과 마늘 수부알」 및 「너의들이 이것을 먹되 백일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한 神雉의 교시가 熊女の 성격을 규정한다.

쭉(艾)과 마늘(蒜)은 악마를 내어 쫓고, 善神 혹은 光明神을 불러 들이는 신품이다.

중국 「禮記」 內則에 의하면 「國君이 아들을 낳으면, 射人이 뿔나무 활과 쭉화살 여섯개로써 天地四方을 쏘았다」<sup>(9)</sup>하고, 民俗에 太陽빛을 빌려 불을 만들 때 쭉을 사용하며, 中夏의 端午에 쭉을 채집하는 습관이 있다 하고, 西歐에서도 쭉과 기타의 약초를 채집하는 습관이 있었다. 태양빛이 성할때 태양의 영묘한 힘으로 자란 쭉초에는 최대의 功德이 내포되었다고 믿었다.<sup>(10)</sup>

일본의 아이누 神話에는 箭(箭)과 箭(箭)으로 惡神을 쏘아 죽이고, 인간을 구제하였다 한다. 그러므로 쭉에는 光明神 혹은 善神의 精靈이 부여되어 있어 모든 악

(9) 國君世子生……射人以桑弧蓬矢六，射天地四方。(禮記，內則)

(10) 五月端午日，宮中에서 쭉 호랑이(艾虎)를 閭閻들에게 하사 한다。(東國歲時記)

「燕北雜志」에는 「遼北方의 풍속에 五月五日, 渤海 속수가 쭉떡을 운다」고 했다.

마, 악귀를 내어 쫓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우리민속에 小兒精神病과 뇌막염에 죽을 사용하여 치료하며, 端午날 액풀이로 죽호랑이(艾虎)를 闕臣들에게 하사한다. 이 죽초가 악귀, 악신을 몰아내는 영한 힘이 있는 식물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熊女の 죽은 巫醫一致를 드러낸 것이다.

죽은 巫女가 齋戒에 쓰는 靈草이며, 또 죽을 「알데미시아」라 하며, 알데미스(女神)의 후기이름인 파테니아(Parthenian)에는 少女라는 뜻이 있다. 孟子에 「知好色 則慕少艾」라 하였는데, 艾는 美女이므로 東西를 막론하고 죽은 少女 혹은 美女의 심볼로 생각하였다. 水精 알데미스는 꿈으로 화하였다. 그러므로 이 水神에 봉사하는 少女는 꿈으로 분장하였다. 죽, 꿈, 水神등이 일련의 관계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므로 熊女는 河伯女와 같이 水神과 통하는 것이다.

중국의 禹王의 父인 鯀에 대하여 「春秋左傳」 昭公七年에 「옛날 堯가 鯀를 羽山에서 죽였다. 鯀의 神은 黃熊으로 화하여 羽淵으로 들어갔다」하였으며, 「海外經」 郭氏傳에서는 「(堯)帝가 祝融으로 하여금 鯀을 羽郊에서 죽이게 하였다. 그후 鯀은 다시 禹를 낳았다」하였다. 혹은 鯀을 鯀이라 하였는데 黃熊의 鯀에서 난 禹가 水神인 鯀의 守護로 治水에 성공하였다. 鯀이 羽山, 羽郊에서 죽었다 함은 羽山에 禁錮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祭祀, 農耗儀禮인 것같이 禁錮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 一說에는 吳鐵刀로 맨 黃熊에서 난 禹가 治水에 성공하고 塗山氏女와 혼인하고, 다시 水神인 熊으로 화하였다 하고, 또 舜임금의 명령으로 治水한 羿가 丹弓白矢로 河伯이 화한 白龍을 쏘아 외눈을 멀게 하고, 洛水神인 伏羲의 女인 宓姬와 神婚하였다 한다.

이로보면 熊과 水神이 관련되는데 熊을 水虎라 하고 또 蠃이라 하며, 꿈은 감(神)으로 水神이라 생각한 것이다.

고구려의 天帝子 解慕漱가 물가에 하강하고, 또 熊神淵에서 河伯女 柳花를 얻었으며 幽閉되었다가 朱蒙을 낳는것등도 위의 설화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마늘도 京西에 걸쳐 惡神, 惡鬼를 퇴치하며, 진염병귀신이 마늘냄새를 싫어한다고 믿어, 그것을 문턱이나 창가에 달아두어 악귀의 침입을 막는 습관이 있었다.

이와같이 죽과 마늘은 악신과 악귀를 몰아내고, 善神과 光明神을 불러 들이는 영력이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醫巫의 呪術에 필요하던 神品이라 볼때, 무당의 治病하고, 살풀이할때 필요한 것이 었다 (11)

그러므로 善과 惡의 상극을 도와 惡을 퇴치하는데 쓰는 것이 었다. 神雄이 「너의들이 이것을(죽과 마늘)을 먹되. 백일동안 햇빛을 보지마라」하였는데

(11) 藥草의 呪術的, 治病的威力은 그식물의 天上原型, 혹은 神에 의하여 증지 된 사실에 있다. 인도에서 藥草“가피다하가”는 性的不能 혹은 生殖力을 회복하는데 사용된다. 이 약초를 뜯는 儀禮로 「저 生殖力이 말라 버린 “부루나”를 위하여, “간다하루바”를 파낸 그이 그를 여기서 파낸다. 男根勃起의 약초를」하고 외우기를 되풀이 하며, 「蕎麥의 “알데미시아”(Aamana)에 대하여도 祈禱辭를 외우면서 뜯는다. 즉 「너, 祝福된것, “가—마데리”여, 우리 모든 눈을 아절하게 하며, 나는 너를 “바이시누”의 瞞意를 가지고 뜯는다」고 한다. 이런 식물을 神으로, 혹은 神들의 女王, 식물의 母, 大地와 天, 水의 主婦라고 하며, 약초의 제집에는 일종의 儀禮가 따른다. (Dr. M. Eliacte 著, 大地, 農耕, 女姓)

햇빛을 백일동안 보지 않는 儀式은 태양에 봉사하는 巫女가 일정한 기간동안 禁忌하는 행위이다.

熊女가「檀樹 밑에서 늘 아이 낳기를 주원했다」는 것은 민속의 祈子祝願으로 樹木神崇拜라 생각되지만, 한편 樹木가지 혹은 나무껍질에서 아이가 출산하는 神話傳說是 널리 있는 것으로 나무는 男根의 심볼일 뿐 아니라 女陰의 상징도 될 때가 있다.

이상 설화의 분위기로 보아서 熊女는 巫醫이면서 태양에 봉사하는 巫女라 생각된다.

특히 곶녀의 기록이 강조되어 있어 女權社會를 나타내며, 이러한 女權社會의 유지는 宗教的인 巫女崇拜 즉 샤머니즘으로 지탱이 된다. 이때의 男性은 種馬의 역할밖에 할 수 없어 栽培經濟의 중심이 女性인 까닭이다.

우리말의 무당(巫·Shaman)은 女巫를 표시하는 중앙아시아의 키루키스語인 Utagan, Udagan, Ubakhan, Utygan, Utugan 또는 Iduan, Duana 와 달다리語의 Uduge 혹은 퉁구스語의 Utakan 에서 온 것이라 하며, 蒙古語의 Buge, Bo 도 우리의 Mutan(무당)과 같은 語源이라 하였다. 그러나 퉁구스語의 Saman 과 터키語의 Kam 은 이와 다른 語源이라 한다. 이와같은 무당을 媒介로 한 原始宗教를 Shamanism 이라 하며, 샤아머니즘(Shamanism)은 極北圈, 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 특유의 呪術宗教로서 하나의 宗教的體系를 갖추고 있다. 퉁구스어의 薩麻(Shaman)이라는 말이 17 세기에 러시아어로 수용되고, 19 세기 중엽 시베리아 각 종족의 조사연구가 시작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퉁구스를 民族學的으로 조사연구한 「시로코고르프」(1887~1939)가

「퉁구스의 신앙에 의하면 샤아먼이란 여러 精靈과 직접 관계를 맺을 줄 아는 男女라」 하였다.

이와같이 샤아먼이 기본이 되는 종교체제를 샤아머니즘이라 하며 그것의 근본은 精靈信仰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샤아머니즘은 애니즘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시로코고르프」는 「애니즘은 보편적인 哲學體系이므로 퉁구스의 여러 부족들의 샤아머니즘을 위한 첫째의 조건이 된다」고 한 것이다.

이와같이 생각한다면 中國古代의 五氣는 바로 土氣, 木氣, 水氣, 金氣, 火氣등으로 氣를 精靈이라 해석하고, 氣概念의 발전에 따라서 氣哲學이 발생할 소지가 마련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徐花攄의 氣哲學, 혹은 主氣哲學은 단순히 중국 宋代의 張橫渠哲學에 말미암는 것 뿐 아니라 멀리 原始時代의 信仰에까지 소급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獨斷일까.